

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제출 자료

民

우리들의 민낯 사전

화장기 없는 말들의 사전

제가 쓴 글을 학습시킨 AI가
이 시대의 낱말을 새롭게 재해석해
매일 아침 한 편씩 자동으로 발행합니다.

minnatdict.com

혼자 읽던 말을, 꺼내 놓기로 했습니다

왜 만들었나

말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글을 사람들 앞에 꺼내 놓고 싶었습니다. 혼자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같은 낱말 앞에서 같이 멈춰 서고 각자 다른 얼굴을 떠올리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출근, 병역, 첫서리, 챗GPT. 매일 쓰면서도 한 번도 벗겨 본 적 없는 말들입니다. 그 화장을 지우면 무엇이 남는지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한 편에 서너 시간. 그 속도로는 나눌 만큼 쌓이지 않겠더군요.

AI에게 맡겨 봤습니다. 잘 씁니다. 그런데 제 글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길이가 고르게 균질하고, 마지막 문단은 늘 “결국 ~는 ~의 거울이다”로 닫혔습니다. 읽기는 편한데 체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했습니다.

AI에게 글을 받지 말고, 제 글을 주기로.

위키백과처럼 표제어를 수록하되 객관적 정의 대신 그 개념의 민낯을 산문으로 씁니다. 계절의 말부터 밥벌이의 말, 이제 막 태어난 말까지 열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제 문체를 아홉 줄로 줄였습니다

AI를 어떻게 썼나 · Claude (claude-sonnet-5)

- 1 문체 종류** — 제가 쓴 글을 원문 그대로 넣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 답으로 나온 특징을 아홉 개 규칙으로 줄여 시스템 프롬프트에 박았습니다.
- 2 집필** — 표제어와 한 줄 관점만 건네면 4~6문단 산문과 목록용 한 문장이 나옵니다.
- 3 퇴고** — 걸리는 문단은 그 부분만 다시 쓰게 하고, 마지막은 제가 손봅니다.

새 글을 쓰는 중

+ 새 글 생성

표제어

민낯

카테고리

감정·심리

이 글을 쓰게 된 이슈

(선택 — 입력하면 제목 앞에 표시됩니다)

예: 사라지지 않는 계곡 불빛 자릿새, '사유와 꿈수'와 단.

참고 맥락

(선택 — 뉴스 요약, 편집 메모)

AI에게 건넨 배경 정보

AI 생성

재생성

부분 다듬기

AI가 집필하는 중... (수십 초 걸릴 수 있습니다)

본문

(문단은 빈 줄로 구분)

십일월의 산책로에서 나무들은 하나둘 겹옷을 벗는다. 여름내 무성했던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면 가지의 굴곡과 상처, 딱따구리가 파먹은 구멍까지 숨김없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이 험벗은 모습을 초라하다 말하지만, 정작 나무는 그 계절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봄여름의 무성함이 오히려 위장이었고, 지금이야말로 나이트와 뼈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짜 얼굴인 셈이다.

우리는 화장을 지운 얼굴에도 같은 단어를 쓴다. 마치 색조와 윤곽이 지워지면 무언가 결핍된 상태에 이른다는 듯이. 그러나 계절이 가르쳐주는 순리는 다르다. 잎이 없다고 나무가 덜 나무인 것은 아니듯, 민낯도 덜 여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직한 완성이다. 감추는 기술을 더할수록 우리는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벗겨낼수록 오래 있고 지낸 얼굴과 재회한다.

다만 이 재회에는 늘 서늘함이 따른다. 겨울나무 겉을 지나며 옷깃을 여미듯, 민낯을 마주한 순간에는 누구나 바람을 느낀다. 가릴 것이 사라진 자리에 스며드는 그 바람이야말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 싶다가도, 실은 그 서늘함 속에서만 뿌리가 깊어진다는 걸 나무는 몸으로 증명한다. 매서운 계절을 험벗은 채 견딘 나무일수록 다음 봄의 잎이 더 짙고 무성하다.

발해 한 문장

감출 것을 다 내려놓은 자리여야, 서늘함을 뚫고 뿌리가 깊어진다.

즉시 발행

예약 발행

초안 보관

저장

집필 화면 — 표제어 「민낯」을 건네자 그 문체로 나온 초고

날말만 넣어 두면, 아침에 나가 있습니다

AI 자동 발행 · Cloudflare Workers + D1 + Cron

대기열에 표제어만 쌓아 두면 매일 07시에 AI가 한 편을 집필해 스스로 발행합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말 하 나가 화장을 지웁니다. 날말이 떨어지면 이미 나온 백여 편과 겹치지 않는 새 표제어까지 제안해 옵니다.

대기열				
#	표제어	카테고리	상태	발행 예정
95	타임라인	기억·시간	대기	09.22 07:00 삭제
94	재외	관계·사랑	대기	09.21 07:00 삭제
93	스마트워치	기술·디지털	대기	09.20 07:00 삭제
92	이력서	일·발명어	대기	09.19 07:00 삭제
91	정수기	일상·사물	대기	09.18 07:00 삭제
90	팬미팅	문화·미디어	대기	09.17 07:00 삭제
89	연금계책	사사·이슈	완료	발행됨
88	병역	사회·제도	완료	발행됨
87	악울함	감정·심리	완료	발행됨
86	첫서리	자연·계절	완료	발행됨
85	손금	몸·감각	완료	발행됨
84	일기장	기억·시간	완료	발행됨
83	환승연애	관계·사랑	완료	발행됨
82	돈줄	신조어·유행어	완료	발행됨
81	아파트 경비원	인물	완료	발행됨

대기열 —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하루 한 편씩 예약돼 있습니다

118 발행	0 예약	0 초안	6 대기열	3 AI 호출 (24h)
예약 캘린더 예약된 항목이 없습니다.		최근 AI 호출 ✓ generate · 민낯 ✓ generate · 민낯 ✓ cron_auto · 연금계책 ✓ cron_auto · 병역 ✓ cron_auto · 악울함 ✓ cron_auto · 첫서리 ✓ cron_auto · 손금 ✓ suggest · 10건 ✓ cron_auto · 일기장 ✓ cron_auto · 환승연애 ✓ cron_auto · 돈줄 ✓ cron_auto · 아파트 경비원 ✓ cron_auto · 고무줄 ✓ cron_auto · 브이로그 ✓ cron_auto · 간병비		

대시보드 — cron_auto 기록이 자동 집필·발행의 흔적입니다

안전장치. API 키는 서버에서만 호출해 노출되지 않습니다. 생성 호출은 분당 6회로 제한하고, 실패한 항목은 오류로 남겨 재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웹툰」 · 문화·미디어 · 2026. 08. 28 발행

문화·미디어

「웹툰」

2026. 08. 28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야기를 밀어낸다. 예전엔 책장을 넘기려면 손 전체가 필요했고 그 넘김에는 저항이 있었다. 종이의 두께, 손끝에 걸리는 마찰. 지금은 다르다. 화면 위로 손가락을 쓸어올리면 다음 칸이 아래에서 밀려온다. 마치 세계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폭포처럼. 웹툰을 읽는다는 건 그 폭포 아래 서서 물줄기를 그대로 맞는 일에 가깝다.

페이지가 있던 시절, 이야기는 칸과 칸 사이 여백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책장을 넘기는 그 짧은 어둠 속에서 독자의 상상력이 끼어들 틈이 있었다. 그러나 스크롤은 여백조차 연출해버린다. 작가는 이제 여백의 길이와 스크롤의 속도, 손가락이 자연히 멈추는 지점까지 계산한다. 침묵도 픽셀 단위로 설계되는 시대가 온 셈이다. 호흡은 더 이상 독자의 몫이 아니라 화면의 몫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통제된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이야기가 더 즉물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페이지를 넘기며 사유할 틈을 주던 만화가 문학에 가까웠다면, 스크롤로 미끄러지는 웹툰은 감각에 더 가깝다. 슬픔은 스크롤 몇 번의 속도로 지나가고, 반전은 손가락 하나의 무게로 툭 떨어진다. 사유의 자리를 감각이 차지했다고 알아챘다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흘러내리는 물도 바위를 깎는 법이다.

밤 열한 시, 막차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을 까딱인다. 흔들리는 열차의 리듬과 스크롤의 리듬이 묘하게 겹친다. 한 칸씩 밀려 올라오는 그림들 사이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인다. 그 정지의 순간, 창밖의 풍경도 옆자리의 소음도 사라지고 오직 흘러내리는 이야기만 남는다. 손끝의 미세한 떨림 하나가, 다음 장면을 불러온다.

스크롤이 여백을 지운 시대에 대하여 — 규칙 아홉 줄이 만든 호흡

마지막 문단을 보아 주십시오. 정리하거나 선언하지 않고, 막차 안에서 손가락을 까딱이는 한 장면으로 내려놓습니다. 아홉 번째 규칙이 지키려 한 것이 이 자리입니다.

곁에 놓인 마음들

읽는 사람의 자리

공감은 ‘마음에 스몄습니다’, 댓글은 ‘곁에 놓인 마음들’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비워도 됩니다. 비우면 ‘이름 없는 마음’으로 남습니다.

한 낱말 곁에 둘 수 있는 마음은 스무 개까지입니다. 그릇이 넘치지 않게, 천천히. 모든 댓글은 금칙어 필터와 승인을 거쳐 공개됩니다.

民

마음에 스몄습니다 6

이 낱말을 건네다

전내기

X

페이스북

주소 옮겨 적기

곁에 놓인 마음들 0 / 20

아직 이 낱말 곁에 놓인 마음이 없습니다. 첫 마음이 되어 주세요.

이 낱말이 당신의 어떤 하루를 건드렸나요. 정답도, 잘 쓴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화장기 없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 짧은 감상, 문득 떠오른 장면, 조용한 반박까지.

다만 한 낱말이 곁에 둘 수 있는 마음은 스무 개뿐입니다. 그릇이 넘치지 않게, 어떤 마음을 남길지는 주인장이 그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고릅니다 — 좋고 나쁨을 재는 저울이 아니라, 이 낱말과 가장 오래 함께 머물 목소리를 더듬는 일입니다. 당신의 한 줄이 이 자리에 놓이지 않더라도, 부디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읽히지 않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스무 개의 자리가 먼저 찼을 뿐입니다.

이 낱말 곁에 남기고 싶은 민낯의 한 줄

남길 이름 (비워두면 ‘이름 없는 마음’)

마음 놓기

스무 개의 자리가 차면 더 받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까지, 그리고 지켜 온 것

2026년 9월 16일 기준

118

발행된 낱말

15

갈래

1

하루 발행 편수

9

집필 규칙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사전 소개 페이지 첫머리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고백하자면, 이 사전의 문장들은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씁니다.” 감추지 않는 것이 이 실험의 전제입니다.

재료는 전부 제 글입니다. 문체의 출처가 제 저작물이라 남의 글을 빌려 온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손은 사람입니다. 기계가 첫 문장을 놓고, 사람이 그 문장을 매만진 뒤에야 발행됩니다.

규칙에도 숨구멍을 뚫었습니다. 금지 조항을 100% 강제했더니 이번엔 규칙을 피한 문장들끼리 서로 닮더군요. 그래서 열 편에 한 편은 일부러 규칙을 풀어 줍니다. 사람도 늘 같은 방식으로 글을 닫지는 않으니깐요.

기계에게는 온기를 배우게 하고,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체온을 되묻는.
이 사전은 그 사이에 놓인 작은 실험입니다.

『우리들의 민낯 사전』 · ai.gpt.park@gmail.com